

“전남광주 초·중·고 100% 서술형 평가 도입”

김대중 K-교육특별시 준비위 교육정책 전략 발표 내년부터 순차 적용·맞춤 AI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대한민
국 최초 초·중·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
수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2일 AI 평
가지원 시스템 구축과 교육과정개발평
가 원 신설, 학교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핵
심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수업이 바
뀌는 평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교
사가 수업에 집중하는 교실을 만들겠다”
며 단순 정답 찾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
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서·논
술형 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6년 도입 지침 마련과 교
원 연수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에는 초
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일부 과

목 및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현장 의견
을 반영해 2032년까지 초·중·고 전반으
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원은 오는 9월 설립추진단을 구성
하고 202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이
에 따라 분청에 집중된 교육과정과 평가
관련 권한은 현장 중심으로 이관하고, 분
청은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 등 핵심 기능
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편할 방침이다.

학교 자율성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
됐다. 학교가 지역 특성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 예술·체육, 인문독서, 디지털·
AI 등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온라인학교와 공유학교를 연계해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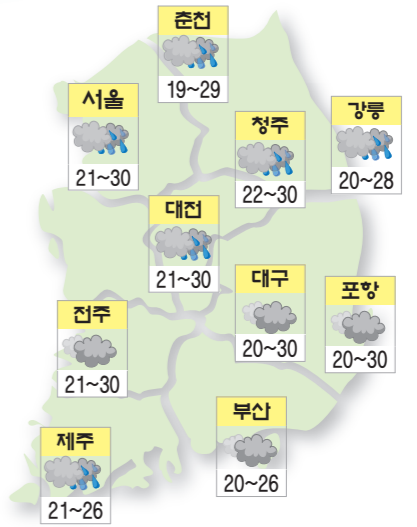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교원 인사를 1월
중 조기 발표해 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
다. 2월을 실질적인 새 학년 준비기간으
로 운영하려면 현행 인사 승인 일정을 최
소 10일 이상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학교가 행정 부담에
서 벗어나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전
남광주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5:23 달맞이 22:06
☁️ 맑음 19:51 달맞이 08:02



광주	☁️	21~28
목포	☁️	21~27
여수	☁️	20~26
순천	☁️	21~27
구례	☁️	20~28
광주	☁️	20~27
신도	☁️	20~27
흑산도	☁️	20~25
고흥	☁️	20~27
진도	☁️	20~26

목포	미물(고)	04:22 / 16:11
	샘물(저)	09:37 / 21:28
여수	미물(고)	10:53 / 23:29
	샘물(저)	05:03 / 16:50

주말 전남광주 최대 80mm 장맛비

기상청, 침수·산사태 위험지역 출입 금지 당부

주말 동안 전남·광주지역에 최대 8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
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4일부터
5일까지 전남·광주지역은 정체전선의 영
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30~80mm, 전
남·광주 내륙 20~60mm다.

같은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평년(최저 20
~21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6일부터 8일까지도 정체전선

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가 내
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태평양고기압 기압지리의 위치
변화와 태풍의 발생·이동 여부에 따라 강
수 시기와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
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하천 주변
과 저지대, 산지 인근 등 침수·산사태 위
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비 피해에 대비
해 달라”며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교통안전에
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사랑의 공방 나눔 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단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봉사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공방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이날 준비한 공방 300인분은 나주공망 하안집 운영점(대표 김장선)에서 후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장윤기 리얼돌’ 폐기한 경찰관 아버지 감찰 착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점감...13일 두 번째 재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
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물품을 폐기
한 행위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감찰 조
사에 착수했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경감은
이들 장윤기 사건 이후 공무원의 품위유
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력계 등 관련 부서와 내용을 확인
하고 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
월8일 장윤기의 자취방을 정리하는 과정
에서 실내용에 있던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 등이 날
카로운 물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으며,
감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정황
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반영했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전남의 한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면
서 구형 휴대전화 등 이들의 일부 소지품

을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찰의 보완수사 과정
에서 장윤기의 본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
인됐다.

다만 장 경감은 형사 입건되지 않은
다.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장 경감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
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
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
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
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층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목포대, 글로벌대학 연차평가 2년 연속 ‘최상위권’

작년 전국 유일 S등급·올해 A등급...산학혁신 성과 인정 송하철 총장 “지역 성장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로 육성”

국립목포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년 글로벌대학 연차평가’에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글로벌대학 중 유일
하게 A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국 35개교(27개 모델) 중 A등급 이
상은 5곳뿐이다. 국립목포대는 지난해 전
국 유일 S등급에 이어 올해 전국 TOP5
(A등급), 2년 연속 최상위권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평가방식은 대학별 우수사례 발
표, 질의응답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전면 공개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돼 현장
에서 성과가 그대로 검증되는 구조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의 핵심 혁신 과
제인 GSP(Global Science Park) 구축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양 대분산융합지구, 나주 에너지
밸리산학융합지구를 조선해양·에너지산
업의 탄탄소, AI 디지털 대전환과 미래산
업 육성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Only-1 연구센터(LNG·수소 극저온시
스템연구센터,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등)가 지역 및 국가 미래산업 혁신 기반
구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1293억원),
전남도립대 통합 안료, 외국인 우수 신입
생 유치에 위한 체계적 노력, 행복 캠퍼스
타운 조성(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프
로그램 운영), 전 학과 PBL 수업 및 해양특
성화 전공 육성사업 확대 등 혁신과제 전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송하철 총장은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그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국립목포대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라며 “국립목포대를 글로벌
그린해양산업 R&D와 교육, 지역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육성해 5
국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을 선도적으로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글로벌대학 선정 이후 대학의 경쟁력
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됐다. 전국 일반국
립대 취업률 1위(67.5%, 25년 발표), 정
시모집 경쟁률 지역 내 최상위권(7.2대
1, 26학년도)을 기록했다.

국립목포대 성과의 배경에는 지자체들
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전남
도(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목포시·
무안군·영암군·담양군은 재정 지원과 지
자체 공무원 파견 등으로 글로벌대학 사
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송하철 총장은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그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국립목포대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라며 “국립목포대를 글로벌
그린해양산업 R&D와 교육, 지역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육성해 5
국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을 선도적으로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 위생매립장 우회 진입로 개설한다

국토부 승인...교통 혼잡·악취 민원 해결 기대 55억 투입 611m 왕복 2차로 신설...2028년 준공

광주 효천1·2지구 주민들이 수년간 불
편을 호소해온 광역위생매립장 진입 우
회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물 운송차량이 주택가를
통과하면서 발생했던 교통 혼잡과 소음,
악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
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2일 양과
동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개설을 위

한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입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양과동 444-3번지 일원
으로, 총사업비 55억원(시비)을 들여 길
이 611m, 폭 8m 규모(왕복 2차로)의 우
회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광주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
물을 실은 차량은 행암교차로와 효천지

구 주택단지, 풀향기어린이공원 인근을
거쳐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이동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
체는 물론 소음과 분진, 악취 등 생활 불
편이 이어지면서 주민 민원이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구는 폭증하는 주민 민원을 해소
하고자 우회도로 신설을 추진했지만 사
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이후 남구가 사업
을 넘겨받아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
계 용역에 착수했다.

당초 노선은 광주시립수목원 예정 부
지를 통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수목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노선도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원 개장에 따라 서문대로에서 매립장 뒤
원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됐다. 하
지만 해당 구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
트)에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

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남구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
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고, 최종 승인을 받아 사
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행암교차로와 포
충사교차로를 거쳐 신설 도로(양과동
444-3번지 일원)를 통해 광역위생매립
장으로 곧바로 진입하게 된다.

폐기물 운송차량이 효천지구 주택가를
통과하지 않게 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대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악취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
대된다.

남구는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토지 보상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27년 1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
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